

겨우 여기

강영숙

소설가

지은은 최근에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기혼 여성 본부장 발탁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해서 은근히 자부심마저 느꼈다.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소 규모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컸다. 물론 제일 큰 도움은 엄마로부터 받았고 지은은 늘 엄마 생각을 했다. 이제 엄마한테 모피 코트를 사줘야지, 이제는 정말 사줘야 해, 그걸 못 하면 난 사람도 아냐. 지은은 첫 달 급여명세서를 보며 살짝 웃었다. 정기적인 인상 폭이라고 해봐야 5퍼센트 정도인데, 이번엔 달랐다. 엄마에게 모피 코트 정도를 사주는 건 당연한 보답이었다. 내가 무슨 셸럽이어서 엄마한테 모피 코트 사준다고, 생태 환경 무시한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꼭 사드리자! 지은은 뿌듯했고 이 모든 변화된 상황을 견인한 자신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일 년 중 3월은 회사 일정상 가장 분주했다. 투자자들이 결정되는 시기라 눈이 다 돌아갈 지경이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창립기념일 기념식도 진행해야 하는데 챙길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팀장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디테일에 민감한 지은은 케이크 디자인, 기념식장 배경 화면 디자인에 식사 장소까지 직접 챙겼다.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완벽한 느낌이 덜했고 조금씩 조악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보였다. 게다가 지은은 자신이 모르게 어떤 일이 결정되는 것을 전혀 용인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다.

지은은 정 팀장이 케이크 업체에서 받아 전달해준 레터링 문구를 워크 스페이스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고 있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창립 15년 진진투자개발그룹이 당신의 자산과 투자를 책임집니다.

축하 메시지를 짧고 심플하게 바꾸고 케이크 위와 옆

면의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다 제거하라고 썼다. 그리고 지은은 상상했다. 창립기념일 당일 케이크를 들고 직원들 앞으로 걸어 나갈 자신의 모습을…….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식을 다 없애면 약간 썰렁하지 않을까요. 브로콜리나 버섯 없이 접시에 덩그러니 올린 스테이크 같다고 할까.

지은은 부하 직원의 글을 읽으며 혼자서 피식 웃었다.

열한 시 오십 분이 되자 직원들이 일제히 사무실에서 나갔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건물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는 동안 지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업무 관련도 아니고 모르는 번호여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다. 지은에게는 결정 장애가 있었는데, 순간 직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카레 먹으면 괜찮겠다. 지은은 그 순간 바로 카레로 결정해버렸다.

늘 먹던 민치 카레를 주문하고 동료들이 하는 드라마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 갑자기 식당이 소란해지는 듯해 지은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빠르게 가방을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시동을 켜기 전 지은은 트렁크에서 운동화를 꺼냈다.

지은의 엄마 용선이 일하는 마트는 국내에서는 꽤 큰 규모의 푸드 전용 프리미엄 매장이었다. 그동안 용선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용선은 나이에 비해 동안이기도 했고 마트 일을 즐겼다. 용선은 지원하는 곳마다 거의 채용이 됐고 일하는 동안은 늘 웃는 낯으로 손님에 대해 회사 평가도 좋았다.

평일 낮에 마트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다. 1층 마트는 거의 저온 창고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지은은 약간 당황해 방향을 잃고 허둥댔다. 그러다 층별 안내도를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바닥을 초록 색깔로 칠한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된 사무실 존이 보였다. 지은은 노크하고 난 뒤 기척이 있기까지 기다렸다. 푸른색 점퍼를 입은 남자 한 명이 문을 활짝 열고 지은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지은은 회의 테이블로 안내되었고, 푸른색 점퍼를 입은 다른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안쪽에서 나와 지은이 앉은 회의 테이블로 왔다.

그들은 먼저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상단에 표시된 날짜는 2022년 2월 7일이었고 시간은 마트 영업 종료 시각 직전인 밤 열 시 사십 분쯤이었다. 시간대가 늦고 코로나 때문인지 매장은 지나치게 썰렁해 보였다. 매장 판매 사원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냉동식품 코너의 진열장에서 물건을 집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화면의 어느 쪽도 클로즈업한 것이 아니었지만 지

은은 흑백 왼쪽 모서리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머리 전체를 모자로 감싼 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분명 엄마였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분이 저희 엄마인 건 맞지만요.

순간 앞에 앉은 푸른 점퍼의 남자가 갑자기 잔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다.

-자 그럼, 7일 이전인데 다른 날 화면도 한 번 보실까요?

남자가 손바닥으로 입을 감싼 채 화면을 확대했다. 화면 속의 직원은 매대 위쪽에 있는 상품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는 중이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저기서 물건이라도 훔쳤다는 건가요?

지은은 얘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옆에 앉아 있던 여자 직원이 지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저는 여기 마트 직원은 아니고 정용선 님을 고용한 식품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용선 님은 우리 회사 소속이세요. 이전부터 마트 보안 담당자께서 정용선 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따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물품을 빼돌리셨고, 증거는 CCTV에 다 있습니다.

직원이 말하는 물품이란 냉동만두와 냉동피자 같은, 돌덩어리처럼 팽팡 언 냉동식품이었다. 지은은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엄마는 식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더욱 아니었다.

-아니 저거 그냥 만두잖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지은은 갑자기 안성을 높였다. 식품업체 직원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가로채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런 물건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 다 수거하셔야 하잖아요. 엄마가 수거를 대신해준 거니까요.

지은은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저희 마트 원칙상 이런 경우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을 가볍게 처리했다가는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저희 마트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고 지하 사무실 공기가 몹시 냉랭했다.

-아니, 겨우 만두잖아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팔짱을 끼고 테이블에서 물러나 앉았다.

-오늘 따님께 연락을 드린 것은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서 출근을 하겠다고 하세요. 어머님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세서와 입금처를 드릴 테니 이쪽으로 배상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정용선님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선처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선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반쯤할 물건이라고 해서 사유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님께서는 이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은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다. 지은은 5층 옥상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지은은 몸을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허둥거렸다. 사람들을 따라 마트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입구 게이트를 통과해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적당한 냉기와 차분한 음악 때문에 지은은 여기 지금 왜 와있는지를 잊었다. 수도 없이 늘어선 T자 모양의 판매대와 거기 담긴 물건이 모두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고, 점심을 먹지 못한 배에서는 몹시 큰 소리가 났다. 지은은 하루아침에 불행의 한가운데 떨어진 기분이었다.

지은은 느릿느릿 신선과일 판매 코너를 통과하고 수산물 코너를 통과해 냉동식품 판매대에 도착했다. 자주색 스커트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쓴 여자들이 각 상품 판매대마다 붙어 서서 손님들에게 뭔가를 팔고 있었다. T자 판매대 앞에서 한 여자가 CCTV에서 본 용선과 똑같은 차림으로 프라이팬 위에서 만두를 굽고 있었다. 자세히 다가가 본 그 여자의 종아리엔 압박 스타킹이 신겨져 있었고, 신발은 서 있기 편한 기능성 신발이었다.

-손님 만두 좀 드셔보세요. 저희가 지금 봄맞이 행사 중입니다. 만두 두 팩을 한 개 가격에 가져가세요.

지은은 여자에게 다가갔고 여자가 주는 초록색 이쑤시개로 만두 한 개를 집어 먹었다. 입 속에 들어간 만두는 굉장히 뜨거웠다. 지은은 말없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두 팩 드릴까요? 계산은 나가실 때 하시면 됩니다.

지은은 만두 두 개를 담은 봉지와 신용카드를 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손님, 잠깐만요.

그때 판매원이 다가와 지은의 손에 들린 비닐에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지은은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고 와인 코너를 지난 뒤 매장 끝의 다이소와 생활잡화 코너까지 갔다가 다시 냉동식품 판매대로 돌아왔다. 판매원은 아까처럼 만두를 굽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판매대에 놓인 만두를 더 잘 보이도록 진열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지은은 판매원에게 다가갔고, 여자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쳐다봤다.

-저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담당 관리자님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 실수를 용서하세요. 제가 대답이 좀 늦었죠?

-실수라뇨, 그냥 여쭙본 겁니다. 수고하세요.

지은은 여기가 엄마가 일하던 자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CCTV에서 용선은 두 팔을 깎지 꺼 허리 뒤로 하고, T자 형 진열대 끝, 냉동식품을 앞면으로 전시해놓은 진열대 옆모서리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가끔 손님들이 지나가면 벽에서 몸을 떼고 만두를 설명해주는 손님이 없으면 다시 판매대의 측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한쪽 발바닥을 바닥에 툭툭 치면서 그렇게라도 조금씩 쉬는 모양이었다. 의자라도 하나 있다면 다리가 아플 때 앉아 있을 텐데, 지은은 마트에는 의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몸을 기댄 순간 뒤통수는 냉장고 소음이 더 잘 들리고 등이 차가워졌을 것이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잠이 쏟아졌겠지. 누구나 종일 서 있으면 졸릴 만도 했다. 오전 아홉 시에서 밤 열 시, 설마 엄마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걸까. 지은은 입술을 물었다. 엄마의 자리는 엄마 대신 취직한 저 여자 판매원이 몸의 한쪽을 기대고 서 있는 돌출된 냉동식품 진열대 옆이었다. 엄마도 저 여자 판매원도 기댈 곳은 차가운 벽뿐이었다. 딸은 본부장이 되었지만, 엄마의 자리는 바로 저기였다. 지은은 그제야 엄마의 실존을 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은 믿기 어려웠다.